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6월 6일(금)

(음력 5월 11일)

Пятница

6 июня 2025 г.

№ 22 (1213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6일은 알렉산드르 푸쉬킨의 탄생일로 러시아에서 '러시아어의 날'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푸쉬킨 동상.

(이예식 기자 촬영)

스미르니흐 지역 주민들, 주지사와 간담회 가져

6월 3일 윤재명 대통령은 스미르니흐 지역을 실무차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묻는 20 개의 질문에 답했다. 질문의 주제는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도로 보수공사, 가스화 작업 및 사회적 제반시설 개선에 대한 문제였다.

주민들은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프로그램이 2025년 이후로 연장되는지를 묻자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해당 조치를 채택하면 사할린 지역이 3단계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답하고 "우리는 이미 노후주택의 3분의 2를 철거했다. 프로그램이 연장될 경우 2027년부터 새로운 이주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도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가운데 주민들은 언제쯤 거리와 마을과 교각 사이 도로를 보수공사할 예정인지 묻자 주 교통부 막심 조골레브 장관은 올해 스미르니흐 지역 체호브 거리에서 2년에 걸쳐 보수공사를 하고, '로스아프토도르'와 공동으로 교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의 문제도 제기되자 주지사는 이 지역에 가스 주유소가 건설되면 대중교통편도 친환경버스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디젤 버스를 재배치하는 임시방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스미르니흐 지역 병원의 외장 공사는 올 9월부터 시작하고, 향후 의료기관은 새로운 의료장비도 받게 된다.

간담회 결과 주지사는 명확한 시행기한 내에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2025년 6월 3일(화)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100% 개표 결과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정당의 김 문수 후보는 41.15%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했다.

보궐선거로 치르게 된 조기 대통령선거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및 내란사태로 12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고,



대선 날짜가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됐다. 이번 21 대 대선 투표율은 79.4%에 달했다.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2030년까지 5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과정 없이 곧 바로 임기에 돌입하여, 6 월 4일(수) 오전 6시 21분

을 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날 오전 11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선서식을 개최했다.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7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2025년 6월 6일(금)

(음력 5월 11일)

Пятница

6 июня 2025 г.

№ 22 (1213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단신

사할린주, <날아올라라> 무인 항공기 축제 개최

<날아올라라> 무인항공기축제에 24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주내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청소년 조종사들이 푸쉬스트리 드론 공항에 모였다. 이번에 세 번째 개최되는 축제의 참가자들은 드론 경주, 드론의 시각 조종, 자율 비행 등의 기술을 선보였다.

앞으로 주최 측은 행사를 확대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할 계획으로 국내 각 지역의 경험과 기술 교류가 촉진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사할린에 새로운 정유공장 건설

극동지역에 정유공장 건설에 따른 2개의 기획이 현재 검토 중인 가운데 하나는 독립 석유회사가 주도하는 정유공장을 하바롭스크에, 다른 하나는 사할린에 건설할 계획이다. 최근에 투자 타당성의 검토 절차가 진행 중으로 '가스프롬'이 이를 건설할 예정이다.

새로운 정유공장 건설은 러시아 다른 지역들에서 수요에 따른 공급의 절반을 의존하고 있는 사할린 지역의 연료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의 기회를 줄 거라 예상된다.

사할린주 투자산업 및 대외관계부 대표들은 정유공장 건설 기획 속에 연료 생산량, 건설 부지, 주변 환경을 위한 안전성 확인이 결정됐고, 건설 기간과 작업 시행도 확정되었다고 전하며 "정유공장 건설 여부는 투자 타당성 검토 절차의 결과에 따라 채택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기업인> 경연에서 사할린주 대표 2명 우승

모스크바 전 러시아 박람회장 <비즈니스 테크노그라드(사업, 기술세계)>에서 전 러시아 <2024년 기업인>상 수상자 시상식이 열려 그중 사할린주를 대표한 예브게니야 안토노와는 <서비스 분야, 아동> 부문에서 우승했고, 게르만 와슈흐니크는 <국내 관광개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두 대표는 사할린주에 등록된 개인 사업가들이다.

또한 경연 27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져 사할린주의 4명의 기업인도 상을 수상했다.

'러시아의 날' 휴일 편성

2025년 러시아의 주요 국경일 중 하나인 6월 12일 러시아의 날이 목요일이다.

공휴일 변경에 대한 러시아 연방 정부의 법령에 따라 러시아 국민은 6월에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연휴를 누리게 된다. 이 휴일은 3월 8일 토요일이 6월 13일 금요일로 대체되면서 연휴는 길어진다.

양문석 의원, '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사할린동포 사망 시에도 배우자 및 자녀 등 영주귀국 가능

· 사할린동포의 기준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이들 대다수가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

· 양문석 의원, "개정안 통과로 오랜 세월 소외된 사할린동포 2세대의 귀환과 정착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5월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

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세월 소외된 이들의 귀환과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보도자료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명단

양문석(더불어민주당/梁文錫),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민형배(더불어민주당/民衡培),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이강일(더불어민주당/李康一),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허성무(더불어민주당/許成武)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 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 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다.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2025년 사할린에서 3차례 국제사업-포럼 개최

투자사업위원회에서 올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대규모 사업-포럼 행사 준비를 언급하며, 8월과 9월에 사할린은 에너지, 무인항공기 시스템, 지속 가능한 개발(·빈곤과 기아 해소, 기본교육 보장, 양성평등, 여성의 권리 신장,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 건강 개선 등) 분야에서 선도적 정책 논의를 위한 중심지가 된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주지사는 5월 26일에 기념하는 러시아 기업인의 날을 맞아 사할린 기업 단체에 축하하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의 활동에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산에 세수를 제공하여 이로써 우리는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난해에 역대 최고로 투자금 3천550억 루블리가 유치되어 대부분의 자금은 비자원 부문에 투입되었다.

사할린주는 투자유치에 있어 러시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가 우리의 앞자리에 있는데 이 순위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2025년까지 우리는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면 사할린에서 정부와 기업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업 단체의 요구하는 문제들에 귀를 기울이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할린에는 국내 첫 공식 드론 공항인 '푸쉬스트'에서 대규모 회의 및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8월과 9월

에는 이곳에서 로스콩그레스와 공동으로 조성되는 국제 사업-포럼이 개최된다.

로스콩그레스의 부회장 이고리 파블로브는 "8월 1일 - 2일에는 <사할린 섬의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적인 측면> 포럼 일련의 행사가 개최된다. 탄소규제 분야에서 러시아의 미래는 사할린의 실험에 있다. 9월 6일 - 8일에는 <사할린의 날개> 무인항공기 국제 포럼이 개최되고, 현재 우리는 중국 세계 무인기시스템 포럼에서 사할린의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협력국가들은 자체 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포럼에 참가 의사를 밝혔다. 가을에 개최되는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 국제 에너지 포럼은 올해는 9월 25일 -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모든 포럼들은 대통령이 참가하는 국내 주요 사업행사 중 하나인 동방 경제포럼의 장외 행사로 개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할린에서 포럼 개최는 사할린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투자위원회 회의에서는 6월 9일 - 1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 기업-포럼 개최가 알려진 가운데 해외 파트너들은 사할린 지역의 기술단지와 핵심기업들을 방문하며, 산업 제반시설과 기획들을 살펴보고, 양국 정부와 기업 대표들의 회담에서는 농산업 및 관광, 건축, 의료, 무역, 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드 제품들은 지역 생산자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이다.

풍성하고 다양한 농작물 외에도 방문객들에게는 민속적인 축제 형식으로 꾸며진 풍성하고 유쾌한 프로그램을 선사했다. 옛 노래의 선율이 화음으로 어우러지고, 댄스 앙상블의 등장으로 관객들은 흥겨움에 휩싸였다. 또한 주최 측은 멋지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구역도 마련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областна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Весна-2025»

В последнюю субботу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традиционная областна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Весна-2025». Ассортимент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широчайший. Однако наибольшее оживление, как это обычно бывает в преддверии посевного сезона, наблюдалось у торговых точек с рассадой.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200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Разнообразие регионов представлен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доставившими растения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из Тымов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и других уголков области. На торговых стендах можно найти рыбу – как свежего улова, так и копченую, мясные деликатесы, молочные продукты и сладости. И все это – дело рук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мимо обширного ассортимента продукции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ждала насыщенная весели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ыдержанная в стиле народных празднеств. Звуки гармони переплетались с мелодиями старинных песен, а танцевальные ансамбли радовали зрителей свои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Красивые снимки можно было сделать на фотографиях,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너의 찬란한 일정〉 첫 가정축제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6월 1일 (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주 민속창작센터에서 <너의 찬란한 일정> 가정축제가 개최되었다. 부모들은 사할린 기업들의 서비스를 알아보며, 유익한 정보를 얻고, 특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행사가 사할린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어 각각의 행사장에서는 2개의 활동교실이 열린 가운데 약 20개의 강습을 통해 자녀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긍정적인 정서를 충전할 수 있었다.

(8면에 계속)

Сезон летнего отдыха для детей старто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защиты детей парк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превратили в центр масштабного праздника, который ознаменовал открытие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и

사할린,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류 세미나 열려

지난 6월 2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호텔 대회의실에서 약 60명이 모인 가운데 주유즈노사할린스크대한민국영사출장소 주최로 '한국, 오늘 이란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 분야 선생님과 학생들이 초청되었다.

이날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박상태 소장은 참가자들을 환영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깊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국어 한국 문화교육 분야 전문가를 모시게 되었다."고 했다.

세미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강사와 사할린 현지 교육자들의 발표로 김회가 새로웠다.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 이정은 강사는 "한국의 오늘"이라는 주제로 1945년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대중문화 예술 발전에 대해 강연을 했다. 그는 저자로서 올해 2월에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주관으로 폐년 '한국 문화 발전사 관련 부교재'를 소개했는데 부교재 목차로는 문학과 대중예술(음악/드라마/영화), 의복과 음식문화 발전상을 기술한 내용 일부를 참가들에게 전했다. 이 부교재는 한국어 교과서의 부교재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과 예비 교사(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돋구자 제작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 책자는 러시아어로 발간되어 학생들의 이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에트노스'학교 김 예브게니아 교사(무용 및 한민족 문화)는 한민족 문화 교육담당으로서 '전통에서 현대로: 학생들의 예술과 삶에 있어서의 한국 문화'란 주제로 발표해 학교에서 문화교육과정을 소개했다. 이론수업과 함께 활동 교실 시간도 있다. 활동교실에서는 떡, 김밥 등 요리도 해보고 한국 인형, 탈, 노리개, 전통 종이 청사초롱 등, 한지 한복 등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과정 수료로 연구 기획을 쓰기도 했다.

사할린국립대 언문·역사·동양학 임 엘비라 학장은 '사할린의 문화 코드: 한민족 문화의 모



든 것'이란 주제로 관심을 이끌었다. 그는 사할린에서 한인들이 한 민족으로서 잘 살고 있으며, 이곳 한민족 문화에 섬을 찾아온 국내 관객들의 관심사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할린국립대에서 한국어 교육과정과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도 소개하고, 현재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1학년생(2024년 신입생) 11% 이상이 사할린 현지인도 아니고, 극동지역 현지인도 아니라 러시아의 중심 지역, 남서쪽, 서쪽, 시베리아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요즘 사할린국립대에서 한국어 교육이 새로운 매력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렸다.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는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이수연 관저요리사가 발표했는데 그는 '한국문화 발전사에 관련 부교재'의 한 저자로서 '쿠킹클래스'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사계절 특색 있는 음식들을 연령에 맞추어 클래스를 구성하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형 요리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연하였다.

문화예술 J-ART 대표이자 블라디보스토크 예술학교 전하리 교사는 부교재 러시아어 번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교류 및 공감 자리를 만들었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에 한국문화발전사를 주제로 강연 경험이 있는 이정은 강사, 이수연 관저 요리사, 전하리 대표는 한인이 많은 사할린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면 사할린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드나들고 싶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 모두가 부교재를 선물로 받았다.

(배순신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러시아 민족들: 사할린 한인'축제 열려 한민족 문화를 접하는 시간 되어



지난 5월 31일(토), 봄의 마지막 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에서 '러시아 민족들: 사할린 한인'축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대한민국영사출장소(소장 박상태)의 협력으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과장 신 윤리아)가 주최·주관했다.

'에트노스'학교의 '빛울림'타악기 팀의 사물놀이 소리가 신나게 막을 올려 관객들을 야외 무대 앞으로 모았다.

이어 '제주두루나눔' 탈째 공연이 흥미를 끌었다. 이번에 사할린에 온 한 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이자 '제주두루나눔'의 고문 심규호(판소리)를 비롯해 고병도·양인정(탈춤), 이주란(태평소), 김만호·이성주(풍물) 배우 총 6명이 제주 입춘굿 탈놀이의 일부 마당을 선보였다.

'제주 입춘굿 탈놀이'는 제주에서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제주의 전통문화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중단되었으나, 1999년 제주 탈째 '두루나눔'이 제주의 전통적인 탈놀이로 복원됐다. 2022년에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주 입춘굿 탈놀이'는 제주를 대표하는 탈춤으로 매년 입춘날(2월4일)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연희하고 있다. "춤, 음악, 노래, 연극으로 구성된 '제주 입춘굿 탈놀이'는 제주를 대표하는 탈놀이로서 새해의 시작인 봄을 맞이하여 마을의 무사안녕, 풍농,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며,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한다.

2부는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는데 항상 그렇듯 관객들의 많은 환호를 받았다. 즐거운 어린이 춤, 난이도가 높은 무용, 마음을 울리는 단소, 북과 장구에 리듬을 타는 학생, 모두가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떡, 김밥, 파전, 여러 무침 등 한식 요리가 잘 팔린 가운데 한민족 놀이 체험 코너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젊은이들이 찾아왔다.

이날 무대에는 백 스타니슬랍의 즐거운 사회로 제기차기, 공기놀이, 딱지 치기 경기까지 진행됐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로는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총영사관 이수연 관저요리사의 체험 교실이 진행됐다. 그는 이날 김치전과 해물파전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요리사의 지도로 직접 전을 부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날 일부 관객들은 한국요리사가 만든 전도 시식할 수 있었다.

이번 한국 문화체험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의 요청으로 문화예술 J-ART(대표 전하리)가 맡았다.

방문객들은 한껏 한민족 문화에 취하여 흥겨워 하며 '잘왔다.', '한국 전통 예술단의 공연 오랜만이다.', '에트노스' 학생들의 공연 등에 대한 칭찬과 소감을 전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한국 유학생들의 사할린 생활 소감

한국 부산 외국어대학 김우현, 양지원 학생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학기 한 교환학생으로서 사할린국립대에서 러시아어와 문학을 배웠다. 사할린을 떠나기 전에 이들은 사할린국립대 옐레나 이콘니코와 지도교수가 내준 숙제를 받아 러시아어로 사할린 생활에 대한 짧은 에세이(4면에 게재)를 썼다. 러시아어본문과 함께 한글 본문이 있어 이것도 신문에 게재하기로 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며>

시간이 너무 빠르다 왜냐하면 2주 후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사할린에서 공부한 지 벌써 9개월이나 됐다. 사할린에서의 생활이 적응되며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진다. 처음 여기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느낌뿐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추억과 좋은 기억들이 내 마음에 남아 쉽게 떠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학기 중에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 중국인 투데이트를 만나게 된 것

이다. 그의 이름은 지마. 우리는 언어의 차이 때문에 대화하기는 힘들었지만 함께 차를 타고 네델스코까지 구경하고 러시아 식당에서 밥도 먹으며 친해졌다.

모르는 외국인 친구와 같은 방을 쓰는 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 편해져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에 다녀왔다. 왜냐하면 나는 모스크바 시립대학의 행사에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함께 산책하고, 유명한 장소들을 둘러보았다. 많은 러시아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좋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서로 궁금했던 질문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붉은 광장, 아르바트 거리, 루텐, 문화 공원, GUM(국영백화점), 모스크바 주립대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다. 모스크바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고, 나는 모스크바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모스크바를 가보고 싶다.

또 한 번은 러시아 친구들의 초대로 코르

사코프에 가서 샤슬리 파티를 했다. 기차를 타고 코르사코프에 도착해서 우리는 직접 속으로 불을 피우고 준비해 온 고기와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잠들 정도로 재밌게 놀다 와서 좋은 추억이 됐다.

물론 모든 날이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러시아어 수업은 여전히 어려웠고, 혼자 있는 시간엔 한국과 가족, 친구들이 그리워진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나는 낮 선 땅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할린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내게 단순한 '해외 경험' 그 이상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다른 문화와 마주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유연하고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시간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남은 2주 동안 잘 준비해서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하게 해준 사할린국립대학교에 너무 고맙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

사할린 고마워.

김우현

사할린에서의 삶

저는 한국에서 러시아어를 배웠을 때 러시아어를 전혀 말하지 못했

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한국이기도 하고 처음 배우는 언어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쓰기만 했고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러시아인 교수님과 하는 회화 수업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와서 러시아어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수업도 러시아어로 하다 보니까 러시아어가 서툴러도 '말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한국에 있었을 적에 러시아어를 못 해도 러시아에 가보는 것이 좋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할린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기회가 된다면 저는 다시 사할린으로 오고 싶어요. 그때는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요.

양지원

О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 сентября 2024 по май 2025 года на кафедр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бучались студенты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Ким У Хён и Ян Чи Вон. В течение двух семестров студенты изучали множество учебных дисциплин: не только практический кур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о и, например, литературное краеведение и историю русской и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еред тем, как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молодые люди написали небольшие эссе. Впроче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семестров студентам приходилось много писать и читать и потому предлагаемые странички из того, как ребята умеют изъяснятьс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это только небольшая часть тех письменных работ, которые есть теперь в арсенале будущих славистов.

Профessor СахГУ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ХОЧУ ВЕРНУТЬСЯ СЮДА...»

Время летит так быстро и уже совсем скоро я вернусь на родину. На Сахалине я учусь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е была интересной, и я почувствовал, как адаптируюсь и воспринимаю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лиже. Когда я впервые сюда приехал, всё было как-то странно и по-новому, но сейчас в моём сердце так много хороших воспоминаний, что я не могу уехать просто так.

Много нового произошло и во втором семестре. Во-первых, у меня появился сосед по комнате. Он китаец, его зовут Дай Шэнэнь. Нам было трудно общаться из-за языковых различий, но мы вместе съездили на машине, чтобы посмотреть Невельск, поесть в местных ресторанах и кафе, стать друг другу понятнее. Было неловко жить в одной комнате с незнакомым иностранцем, но теперь мы чувствуем себя вдвое комфортно и хорошо. Во-вторых, я и моя однокурсница ездили в Москву, пробыли там целую неделю. Нас пригласил на большое нау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Московский городско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Кроме того, в Москве есть много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месте мы часто гуляли по городу и осматривали известные места. Я был так благодарен, что многие российские друзья проявляют интерес к Корее и думают о ней хорошо. Мы общались по-русски и по-корейски, задавая друг другу вопросы. Мы побывали в различных местах, включая Красную площадь, Арбатскую улицу, РУДН, Парк культуры, ГУМ, МГУ и так далее. Москва –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город, который мне сильно понравился. Если у меня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то я хочу посетить Москву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А ещё однажды,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друзей, я съездил в Корсаков: там мы устроили вечеринку. Мы ели шашлык и нам было необыкновенно весело. Приехали мы в Корсаков на поезде: сами разожгли костёр, чтобы приготовить мясо и другие блюда. На обратной дорог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я уснул в поезде от таких интересных впечатлений и нового опыта. Эти и другие события стали для меня хорошим воспоминанием.

Конечно, не все дни были просто весёлыми. Заняти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по-прежнему были сложными, и когда я был один, я часто скучал по Корее: по семье и друзьям. Но эти моменты мне удалось пережить благодаря людям, которых я здесь встретил, смог почувствовать тепло даже на незнакомой земле.

Обмен студенческой жизнью на Сахалине был для меня больше, чем просто зарубежным опытом. Здесь я столкнулся с другой культурой и глубже погрузился в себя, и я также осознал, какой я гибкий и сильный человек. У меня нет сомнений, что все эти годы станут важной частью моего будущег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Сахалинско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университету за эти драгоцен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и опыт. Если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у меня будет ещё один шанс, я непременно хочу вернуться сюда. Спасибо, Сахалин!

Ким У Хён

«Я БЫЛА ТАК СЧАСТЛИВА!»

Когда я изучала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орее, я вообще не могла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Поскольку это была Корея, и я впервые изучала языки, мне было крайне неловко. Поэтому я просто слушала и писала, и мне было трудно учиться. Занятия по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с русски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были испытанием, было немного страшно за мой русский язык.

Но когда я приехала в Россию и встретил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говорили только по-русски, я стала понемногу привыкать к новой для меня культуре. Ведь все занятия велись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я не чувствовала теперь, что мне трудно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хотя я и не знала русский язык так хорошо, как мне хотелось. Я вспомнила, что сказала мой корейск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гда она была в Корее, то мечтала поехать в Россию, даже если бы она совсем не могла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Такой шанс появился и у меня!

Я была так счастлива, что смогу учи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Если у меня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я хочу снова приехать на Сахалин. Но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я приеду с друзьями или с семьёй.

Ян Чи Вон



Танцы с маскам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весны, 31 мая, в парке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о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празднество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фестиваля «Народы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Фестиваль открыло выступление ансамбля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Битулим», после чего на сцену вышли гост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6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нсамбля «ЧеджуДуруНанум» представи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нцы с масками с острова Чеджудо. В 2022 г. корейский танец с масками внесен в список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андемия и после нее) артисты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 часто бывают на Сахалине. И зрители были рады выступл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ЧеджуДуруНанум» занимается популяризацией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Чеджу по всему миру. Не раз выступал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держивая тесные связи с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ой г. Макаров, где проживало немало выходцев из острова Чеджудо.

Продолжили концерт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ШИ «Этнос». Как всегда их выступления были на высоте. Прекрасные танцевальные номера, зажигательные ритмы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трогательные звуки дансо, чистые голоса ребят создали неповторимое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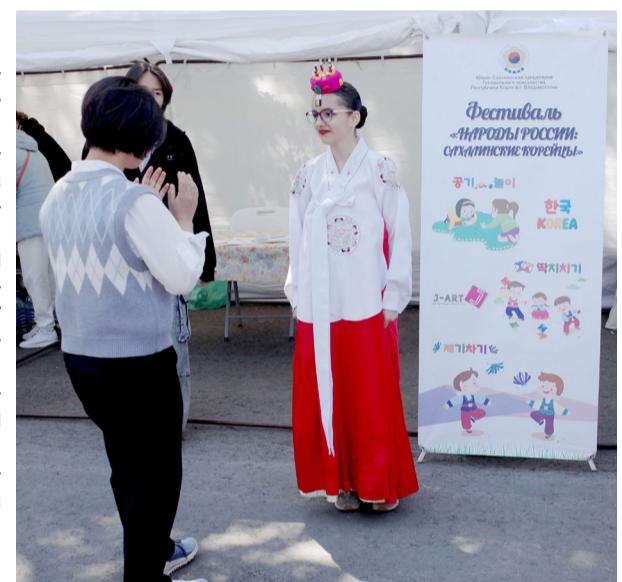
В перерывах между номерами проходили финальные туры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игр.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призы.

А в завершение был проведен кулинарный мастер-класс. Шеф-повар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Ли Су Ен подготовила секретами приготовления «кимчилен» (блинчики с кимчи) и «хемульпаден» (блинчики с луком и морепродуктами), которые смогли проп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все желающие зрители. Кстати, у шеф-повара опыт работы в посольствах и консульствах РК Швеции, Таиланда, Бостона и Милана.

На площадке также работала ярмарка корейских продуктов, которая пользовалась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ял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а и Бя Виктори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ставили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2 июн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семинар «Корея сегодн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ста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зале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60 человек, среди котор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а также слушатели 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В этот день лекторами стали авторы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я «История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й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ы» - преподаватель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Ли Ден Ын (이정은) и шеф-повар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Ли Су Ен (이수연), ведущий семинара стала Тен Хари (전하리), директор J-ART, которая перевела данное пособие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Ли Ден Ын представила в этот день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и обозначила пути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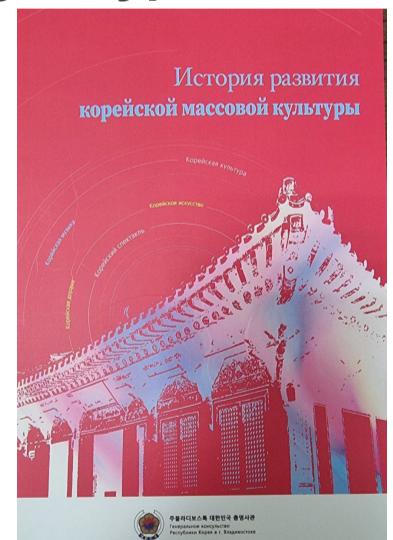
Шеф-повар Ли рассказала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мастер-классах и фестивалях, разграничивая их по возрастному составу, а также по временам год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й хореографии и культуры ДШИ «Этнос» Евгения Ким поделилась

опытом преподавания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в школе. Ее доклад назывался «От традиций к современности: культура Кореи в творчестве и жизни школьников». В силу того, что нет специального учебника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Евгени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азработала учебную программу,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не только теоретические уроки, но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Ребята через мастер-классы глубже узнают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уют и различ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ми успешно занимаются учащиеся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выступила с темой «Культурный код Сахалина: все о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ультуре».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ахалин стал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м среди российских туристов, которые, посещая Сахалин, очень откликаются на корейскую тематику, будь то кухня или история.

В регионе востребовано изучение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в част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едут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на учебу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ля обучающихся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не включает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траны составила практически 11,43% (поступив-



шие в 2024 г.). Студенты прибыли из Москвы, Тольятти, Краснодара, Якутска и т.д. Докладчик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а масштабные проекты СахГУ по обмену опытом, представлению восточных культур, среди которых Международна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уникальный опы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культур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учебными заведениями, в которых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семинара получил в подарок представленное в этот день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Виктория БЯ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Лидер КНДР принял секретар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4 июня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он Ын принял прибывшего в тот же день в Пхеньян секретар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Сергея Шойгу.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бсудили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и ситуацию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подтвердив готовность к активизации взаим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ергей Шойгу передал Ким Чон Ыну приветственное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и передал ответное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и. Он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НДР продолжит безоговороч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Россию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Доклад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КНДР и РФ - нарушение суверенитета

Доклад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группы мониторинга за соблюдением санкций, посвященный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хеньяна и Москвы, является «провокацией и нарушением суверенных прав государств».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 июня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Доклад сфабрикован, а сама группа не имеет легитимных оснований дл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хеньян «выражает серьезн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в связи с провокациями Запада, пытающегося посягнуть на суверенные права КНДР»,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Все 11 стран - членов группы «враждебно настроены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и России». Более того, «никто не наделял США и их послушных союзников полномочиями давать оценку легитимным отношениям между сувере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Многосторонняя группа мониторинга за соблюдением санкций была создана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К и США. Она сменила распущенную ранее группу экспертов по контролю за санкциями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крипачка Пак Су Е победила на Конкурсе имени Яна Сибелиус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крипачка Пак Су Е стала обладательницей гран-при 13-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имени Яна Сибелиуса,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Хельсинки с 27 по 29 мая. В финале она исполнила скрипичный концерт Оливера Кнудсена с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радио Финляндии и скрипичный концерт Сибелиуса с Хельсинкским филарм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Минами Ёсида из Японии, а третье место — Клер Уэллс из СШ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скрипачей имени Яна Сибелиуса проводится в Хельсинки каждые пять лет, начиная с 1965 года. В нем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музыканты в возрасте до 30 лет. На 12-м конкурсе, проходившем в 2022 году, обладателем гран-при ст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крипач Ян Ин Мо. 12-й конкурс должен был пройти в 2020 году, но был отложен на два года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Группе риска рекомендуют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призвало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друг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группы риска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Причиной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новые штаммы заболевания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в странах Азии, в частности, в Китае, Таиланде и Сингапуре. Медики опасаются, что летняя вспышка может коснуться РК.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бесплатную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могут пройти люди старше 65 лет, лица с ослабленным иммунитетом старше шести месяцев и пациенты, находящиеся на стационарном лечении. Всем, кто планирует поездку в Китай, Таиланд или Сингапур,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еред отъездом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В апреле в РК побывали 1,7 млн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в РК побывали 1.707.113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Это 104,4% показателя того же месяца допандемийного 2019 года, а также на 16,7%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по числу туристов Китай - 44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Япония и Тайвань. В апреле 2 млн 150 тыс.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осетили зарубежные страны, что составило 95,7% показателя того же месяца 2019 года. Совокупное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сетивших РК с января по апрель этого года, составило 9 млн 95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98,4% показателя апреля 2019 года.

Боевик «Hi-Five» вышел в лидеры проката

Комедийный боевик «Hi-Five»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Кан Хён Чхоля вышел в лидер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инопроката.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азвития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дни с 30 мая по 1 июня «Hi-Five» посмотрели около 380 тысяч зрителей. Фильм повествует о пяти обычных людях, чьи жизни резко меняются после пересадки органов. Фильм «Миссия невыполнима-8. Финальная расплата», занявший второе место, посмотрели около 371 тыс. зрителей. С 17 мая он заним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числу просмотров в отечественном прокате, и его посмотре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 млн 470 тыс. человек.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фильм «Большая сделка», на который за выходные проданы 131 тысяча билетов.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двух мужчинах, запутавшихся в деле о слиянии во время азиатск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1997–1998 годов.

Ли Чжэ Мён сделал первые назначения в своем окружении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не стал терять времени. В первый же день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он сделал ключевые назначения в сво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ак и прогнозировали СМИ, его главным кураторо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тал специалист по России,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й многим в Москве дипломат Ви Сон Лак.

Ли Чжэ Мён лично провел «презентацию» своих ключевых помощников, представив их журналистам. Характеризуя их, Ли отметил, что они «объединяют в себе верность народу, высокую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Главным из озвученных назначений стало выдвижение депутата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им Мин Сока на пост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Это опытный политик, четырежды избиравшийся в парламент, долгое время входивший в руководство партии и игравший одну из ведущих ролей в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ампании Ли Чжэ Мёна.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идит в Киме «координатора между Кабинетом и народом», способного обеспечи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и преодоление внутренних кризисов.

Пост главы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предложен Ли Чжон Соку - бывшему министру по делам объединения и советнику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покойном президенте Но Му Хёне. Его кандидатура, по словам Ли, «символизирует стремление к pragmatичной политике и инновационной реформе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нтересно, что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работы нового «главного разведч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а заявлена нормализация и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ло назначение известного

дипломата и «россиянина» (эксперта по РФ) Ви Сон Лака на пост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аналог помощника п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Ви - один из самых опытных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страны, бывший посол РК в Москве, специалист по Росси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н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и оборонных предвыборных повесток Ли Чжэ Мёна во время выборов. Сам президент назвал его «фундаментом политики продвинутой обороны и практиче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значение Ви указывает на усиленное внимание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 дипломати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к отношениям с Россией.

Помимо этого, пост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занял депутат от Демпартии Кан Хун Сик - первый в этой долж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коления 1970-х. Должность пресс-секретаря президента перешла к Кан Ю Чжону, а главой службы охраны назначен бывший генерал армии Хван Ин Гон.

Ли Чжэ Мён пообещал не спешить с остальными кардинальными решениями и «внимательно прислушиваться к мнению общества и партий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тметим, что сегодня же прошла инаугу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который был в 6 часов 21 минуту утра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лен победителем состоявшихся 3 июня в Корее 21-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Так как предыдущий лидер был смещен с поста досрочно, в результате импичмента, то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принял полномочия без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как только были объявлены результаты подсчета бюллетен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задержали крупнейшую в истории партию кокаина

Таможня и Служба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секли крупнейшую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траны попытку ввоза кокаина: почти 1,7 тонны наркотика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на борту грузового судна, прибывшего в порт Окке в районе города Каннан. Все произошло еще 2 апреля, но сообщено об этом только сейчас, когда операция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лась.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ю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ы Сеула и 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Службы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к расследованию инцидента были подключены спецслужбы США - ФБР и Служба внутрен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ставка наркотика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на грузовом судне L, водоизмещением 32 тысячи тонн, которое первоначально шло из Перу в Панаму. В ночь на 8 февраля, находясь примерно в 30 милях от перуанского побережья, оно осуществило встречу с двумя скоростными лодками, на борту которых находились 10-15 член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ркокартеля. С этих лодок на судно были перегружены 56 мешков, в которых находилось 1 690 брикетов кокаина - каждый весом около 1 кг.

После выхода из Панамы судно направилось в Корею, планируя в пути по системе «drop & pick up» сбросить наркотики в открытом море вблизи Японии, Китая и острова Чеджу, откуда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быть подняты другими судами. Однако из-за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реализация плана не удалась. Последняя

попытка тайного сброса груза в море у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ореи также была сорвана благодаря опе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ластей.

Когда же судно в итоге зашло в порт Окке в районе города Каннан, то его уже ждали следственные группы. Всего для досмотра и обыска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90 сотрудников и две собаки-ищушки. В таможне РК признали, что им пришлось изрядно постараться, чтобы в итоге выявить тайники, которые находились между переборками судна. Именно там и хранился весь объем кокаина. Общий вес партии составил 1 690 кг - эт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о данным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ей, достаточно для одновременного употребления более 57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На рынке его цена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50-6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сле изъятия груза была сформирована совместная следственная группа из 47 человек, которая провела допросы всех 20 членов экипажа, а также собрала улики с помощью криминалистических и цифровых метод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восемь главных подозреваемых, из которых четверо были арестованы и переданы прокуратуре, а еще четверо - успели покинуть судно до его захода в корейский порт и вылетели на Филиппины. В отношении них Южная Корея инициировала процедуру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озыска через Интерпол.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КНДР утвердила закон о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не Вонсан-Кальма перед ее открыти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няла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ибреж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не Вонсан-Кальма, готовясь к ее открытию,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му на июнь. Об этом 30 мая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состоявшегося накануне.

Хотя детали нового закона не раскрываются,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документ направлен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и капитала. Проект Вонсан-Кальма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с 2014 года, однако сроки его реализации сдвигались из-з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и пандемии COVID-19.

После визита Ким Чен Ына на объект в ию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ктивизировалось. Спутниковые снимки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включая Planet Labs, демонстрируют завершенные гостиницы, аквапарк и остановки трамвая вдоль побережья, что свидетель-

ствует о высокой степени готовности зоны.

Как считают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КНДР будет делать ставку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зону Вонсан-Кальма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з Китая и России, а также на развитие внутреннего туризма. Потенциально данный регион - Вонсан-Кальма - горы Сораксан -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Масик - побережье Восточного (Японского) моря - имеет хорошие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круглогодичного турпотока: здесь компактно сосредоточены море, пляжи, горы, горнолыжные трассы, хвойные леса, рядом есть также достаточно крупный город Вонсан, а прямая скоростная дорога связывает со столичным регионом. Наличие же собственного аэропорта, который был недавно модернизирован, позволя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ямые рейсы из соседних стра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80 поисковиков из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экспеди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2025». Четверо с почестями захороненных красноармейцев, сотни гильз и личных вещей героев –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труда поисковиков.

Участника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2025» стал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активисты из 26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Эстони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они исследовали местность в поисках останков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павших во врем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Поисковики работали на сопках Длинной и Плоской, где наступал 157-й стрелковый полк.

– Год 80-лети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 это также и год заверш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точка которой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пали сотни героев. Наши поисковики поднимают останки воинов и предают их земле со всеми почестями, рассказывают истории красноармейцев, находят ценные артефакты. Этую работу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вды невозможно переоценить. Мы будем вечно помнить наших героев, павших в боях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еликая Победа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укрепляет наше общество и сегодня, когда мы отстаиваем интересы страны. Наши ребята сейчас защищают Родину, как и воины, которые переходили 50-ю параллель 80 лет назад.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героям! Низкий поклон поисковикам! Скорейшей победы нашим защитникам!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хоронения четырех советских бойцов на мемориале в Победино. Один из красноармейцев обрел имя. Павел Григорьевич Булатов 1917 года рождения – ефрейтор саперного взвода 52-го пограничного отряда – погиб 19 августа на Сахалине.

– Разведгруппа попала в засаду, и завязался бой. Мы по архивным документам установили личность погибшего героя. Сейчас ищем 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ов. Также на сопках Длинной и Плоской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нки трех погибших красноармейцев, которые пока остались безымянными,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 Погода нам в этот раз благоприятствовала. Мы нашли множество гильз, осколков снарядов, личных вещей, по которым можно восстановить судьбы бойцов. В этой экспедиции мы заполнили множество белых пятен на карте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удем исследовать новые места.

Поисковик из Ханты-Мансий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руководитель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клуба в Сургуте, Андрей Поп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приезжает уже в шестой раз.

– На Сахалине интересно работать. Здесь мы поднимаем бойцов на вершинах. Приезжают поисковики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найти близких по духу людей и обменяться опытом. Война завершилась 80 лет назад, но неизведенных страниц еще осталось немало. Сил работать дальше придает то, что есть результат. Герои обретают имена и заслуженные почести, – поделился участник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губернатор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и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музея воен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в Роццино.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вершился первый этап работ. Мы сделали трибуны для 1500 зрителей, обустроили парковочную площадку на 500-600 машин.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аем второй этап. Устраиваем земляные валы с деревянными проходами, противотанковый ров и восстанавливаем дзоты. Территория будет наполнена образцами вооружения. Работы должны закончить до 1 августа,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музея-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Юрий Филипенко.

Каждый год в Роццино проходит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На 50-й параллели воссоздают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 одного из важнейших сражений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Роццино также открылся сквер Памяти погибших воин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Здесь сделали покрытие из тротуарной плитки, обустроили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установили памятные стелы в честь павших героев.

Труд сахалинских врачей отнесе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съезде онкологов

Крупнейшее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яющее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клиницистов 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стоялось в Уф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редставили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диспансеров. Одним из успеш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фильных центров, чья работа отмечена выдающимися российскими врачами, академиками Каприным и Чонзоновым, стал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диспансер.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 Сахалине достигнуты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в лечении онкологии.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в работе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проходят под знаком больши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крупнейши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чатых проект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 профильном медучреждении было значительно обновлено оборудование, в том числ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Установлены новые компьютерные томографы, МРТ, линейные ускорители. Внедрение таких аппаратов, как ПЭТ/КТ и ОФЕКТ/КТ позволило создать центр ядерной медицины на Сахалине и приступить к новым видам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 Прирост показателя по выявлению рака на 1 стадии за 10 лет составил 42%. Это результат работы всех служб – начиная от амбулаторного звена, где все внимание должно быть устремлено на то, чтобы заподозрить, не пропустить малейший признак или симптом. И профи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определяющего методологию работы с пациентами – маршрутизацию от момента выявления до определения тактики лечения и пожизнен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Эдуард Винарский.

Внимание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было уделено анализу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недренных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технологий от роботизированной хирургии и таргетной терапии до методов иммунотерапи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меняют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прогнозе при злокачественных новообразованиях. Эти знания и совместное обсуждение особенно ценно, так как наука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 новые методы оперативно внедряются в практику. Результат – многократный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спасенных жизн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десять лет на 30% увеличилась доля пациентов, состоящих на учете 5 и более лет, а снижение показателя запущенных случаев злокачественных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й составило 14%.

– XIII Съезд онкологов России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где определены дальнейшие пути развит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й онкологии, утверждены новые векторы научного поиска и выработаны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влияющие на сист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целом, – отметил во вступительном слове главный онколог страны, академик Андрей Каприн.

Труд сахалинских врачей не остался незамеченным.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работы главному врачу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Сергею Старцеву вручена награда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нкологической службы России.

От школьника до инженера: как на Сахалине ищут решения кадрового дефицита в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форума работников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карьер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планы, побывали на угледоб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Во время форума презентовали молодёжные центры, которые откроются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Завершился первы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ёжный форум работников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ленарные сессии, круглые столы, работы в группах, презентации и защита проектов – это только малая часть того, что удалось сделать участникам за два дня, проведенных в Шахтерске.

«Для нас было важно получить от ребят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по некоторым темам. Первое – как сохранить молодёжь на местах, в тех районах, где они живут и есть градообразу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Второе – интерес к угольной отрасли. Всегда ли это зарплата или есть ещё какие-то факторы, которые влияют на выбор молодёжи. Помимо этого, у ребят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напрямую побыват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едприятий», – рассказывает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ожепенько.

Главные темы пленарных сессий, которые состоялись на форуме, касались привлечения молодых кадров в отрасль и удержания сотрудников. Цель встречи – обсудить, как удержать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небольших городах и сделать профессии в угольной отрасли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для молодёжи.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и ряд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развитием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повы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молодёжи работодатели активно применяют новые подходы при поиске персонала: внедряют удалённую работу, разв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учебными заведениями, работают над созданием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среды проживания. Адаптация новых сотрудников становится важным элементом успеха компаний, обеспечивающим снижение текучки кадров и повышение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 отметила HR бизнес-партнёр по работе с персоналом угледобывающ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Татьяна Иванек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сессиях уделили тому, как сформирова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й HR-бренд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угле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Сегодня сотрудникам важно не столько финансов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сколько ощущен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лич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и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труда. Как отметили спикеры, сегодня молодые сотрудники ценят баланс межд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и личной жизнью, для них важна корпоративная культура и корпоративные ценности компании.

«Программа собирается под три целевые аудитории: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и работающая молодёжь. Под каждую категорию разработана своя специфика. Школьникам нужно было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профессии и том, что сегодня происходит в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удентам –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некотор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траекторией построения своего карьерного плана 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 отрасли, а молодым работникам – посмотреть на свою должность немного со стороны, понять, что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есть тоже такие же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ые готовы к обмену опытом и формированию Союза молодых работников, кото-

рый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ет объединяться по каким-то общим идеологиям и принципам работы», – сказала программный директор форума Ольга Емельянов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ам рассказали о том, как правильно подготовить резюме, подчеркнув важность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ого подхода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мпетенций и личностных качеств соискателей.

В качестве спикера на форум работников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риехал глава Шахтёр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ДНР Александр Шатов. Отметим, что город стал подшефной терри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июле 2022 года.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зял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оказание всесторонней помощи городу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мирной жизни.

«Очень хорошо, что у нас есть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и площадка, где мы могли пообщаться с нашей молодёжью. Услышать запросы, а что они хотели бы видеть.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не только деньги решают. Здесь несколько факторов –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профессии, ее престижность», – отметил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На форум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молодёжных центров, которые появятся в Углегор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до конца года. Концепция будущего молодёжного центра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ЦМИ «РОСТ».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оится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В Углегор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будут открывать два молодёжных центр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ожепенько. Она подчеркнул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Ребята поделились своей концепцией. Мы обсудили проекты, обсудили те инициативы, которы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в Углегорске и Шахтёрске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редложенные идеи заложили основу для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современного центра, который станет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молодых жителей района, предлагая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досуга и реализации инициатив.

«Все состоялось! Результаты превзошли все ожидания. Мы познакомили ребят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где уголь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является градообразующей. Они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заниматься этим непростым и тяжелым делом. Страна ждёт именно таких героев, таких смелых и энергичных.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мы презентовали молодёжные центры. Поговорили с ними о том, как они видят их работу и наполнение. Для нас это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которого ждёт молодёжь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Буквально недавно были вручены ключи от двух помещений. Скоро начнется их наполнение. Центры будут разнопрофильными. Их будут посещать как молодые люди района, так и гост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Углегор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Фёдор Филин.

Учащиеся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и работающая молодёжь побывали на экскурсии на угледоб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посети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которое готовит кадры для отрасли. Студенты занимались разработкой карьерных планов с экспертами.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день форума участники поднялись на Останец Лягушка и поиграли в музыкальный квиз.

«Для нас, как для угольщиков, самый первый вопрос – количество добываемого угля в сутки. Нас, конечно, впечатлило 50 тысяч в сутки. Для нас – это что-то недостижимое», – делится участник форума из ДНР Дмитрий Гуленко.

«Все такое огромное, масштабное. Мы смотрели на эти машинки, которые погружают уголь, и отчетливо их видели издалека. Я боюсь представить, если бы я стояла рядом с ними, насколько они были бы огромными. Это очень круто, что такое есть. Очень жаль, что мало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 этому привлекается. Даже сама задумалась о том, чтобы переквалифицироваться и, возможно, здесь работать», – сказала участница Луиза Зайнулина.

«Я из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Приехал на Сахалин на работу. В моем городе, в Горловке, сейчас не работает ни одно предприятие. Я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ереехать. Мне нравится здесь жить.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где я работаю, встретил свою судьбу и летом у нас свадьба», – поделился инженер-проектировщик Управления ОГР Александр Бабак.

«Появились мысли переехать. Рядом море, а я рыбалку люблю. Реки чистые, природа. Мы съездили на Лягушку,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в 20 км от города. У нас в Кузбассе, чтоб до такого доехать, нужно сотни километров преодолеть. Мы общались с другими участниками, и ребята из Воркуты тоже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 рассказал участник форума Филипп Конончук.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ёжный форум работников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рошёл в Углегор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Единой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Форум собрал 250 организаторов, участников, волонтёров,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спикеров и модераторов. Это молодые люди от 16 до 35 лет из Москвы, Красноярского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ев, Кемеровской и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ей, республик Хакасия, Башкортостан, Коми, Крым,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Ханты-Мансий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а также ряда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ле подведения итогов и положительных отзывов учас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рассмотря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работников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ежегодн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1면의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라는 말을 서두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시대의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초과학기술 신문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무한 경쟁의 시대,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의 대전환을 암울하는 시대에 변화를 주도해 가겠다며, 무엇보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이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로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진보와 보수를 가르지 않고,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의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의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어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말한 가운데 5가지로 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둘째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

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여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셋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며,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하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로써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넷째,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다. 문화가 꽂피는 나라를 만들겠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이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이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이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변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이러한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며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은 나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고,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 매체 인용해 작성)

고려인 동포들, 지역사회 '잇는' 배식 봉사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 회원, 서울 마포서 독거노인 등
지역 거주민 500여명 대상 배식 봉사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 "동포들과 사회공헌 활동
지속해 펼칠 것"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이 뿌리를 지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재외동포청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단체인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의 채예진 이사장과 회원들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음식 배식 및 설거지 등을 진행했다.

1999. 11. 설립 아래 1일 약 500명 대상 중식 제공 중

채 이사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라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뿌리를 지키는 동시에 이 땅의 국민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GN은 정기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비롯해 고려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연 6회 각 6주간 '미래이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고려인 동포와 지역사회를 '잇는'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KGN는 최근 상지대(3.28), 충남인터넷고(5.9), 전북대(5.22)등과 업무협력(MOU) 체결.

한국어 수업, 역사, 한국 예절 관련 교육 등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청년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번 봉사활동에는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과 직원들도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기성 국장은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동포들을 알리고 그들과 지역사회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올해 초부터 중국동포와의 공동 협력 행사(1.21), 고려인 동포와의 설맞이 노인복지관 봉사활동(1.23), 중국동포와의 공동 배식 봉사 활동(4.30) 등 국내 소재 동포단체와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2025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6월 4~30일 코리안넷 접수 올해 첫 수상자 전원 고국 초청해 국내 문인과 교류의 장 마련

재외동포청(정장 이상덕)이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2025 재외동포 문학상'을 공모한다.

올해 27번째 마련되는 문학상 공모는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코리안넷(korean.net)을 통해 진행된다.

공모는 시, 단편소설, 수필 등 3개 부문으로, 자유 주제 또는 정체성, 이민 체험, 한글학교 활동 등을 담은 창작물이다.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7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 청소년(만 7세 이상~19세 미만)은 시민권, 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 500만원, 우수상 250만원, 가작 100만원 등 총 13명의 수상자에게는 모두 2,9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 기간 및 방법, 재외동포청 유튜브(youtube.com/@OKAKOREA)를 통한 사전

설명회, 심사 및 발표 등 자세한 문의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https://www.oka.go.kr>)와 코리안넷, 공식 페이지(<https://m.site.naver.com/1ISKG>)를 참조하거나 이메일(pms01@okocc.or.kr) 또는 전화(+82-2-3415-0144)로 하면 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재외동포 문학상'은 한글 문학 창작의 장을 마련하고, 내외국민 간 문화적 소통을 촉진해온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고국에 초청해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초청 행사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국내 문인들과의 교류 및 문화 체험을 통해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더욱 깊게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참가비 전액을 지원한다.

(재외동포청 제공)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2025. 6. 4.(수)
~ 6.30.(월)
23:59 (한국시간 기준)

응모 자격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 단, 청소년(만 7세 이상~19세 미만)은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공모 부문

부문	출품 편수	1편당 원고 분량	
		글자수	작품 응모 서식
시	3~5편	제한 없음	
단편소설	1~3편	16,000자 내외	15쪽 내외
수필	1~3편	5,000~10,000자 내외	5~10쪽 내외

문의

• 재외동포문학상 운영사무국

• 이메일: overseaskids2025@gmail.com

• 전화번호: +82-10-4302-1810

• 카카오톡 채널: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 공식 페이지 주소: <https://m.site.naver.com/1ISKG>

QR코드
공식 페이지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시상 내역

시	단편소설	수필	수상자별 상금
대상	1명	1명	500만원
우수상	1명	1명	250만원
가작	2명	2명	100만원

시상식·초청 행보

• 지원 내역: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참가비 일체

• 항공은 왕복, 일반석으로 재외동포청 지원기준 상한액 내에서 지원

• 일정, 장소, 항공료 상한액은 추후 수상자 개별 통보

접수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5. 6. 4.(수)~6. 30.(월) 23:59(한국시간 기준)

• 방법: 코리안넷 (korean.net) 온라인 접수

① 코리안넷 (korean.net) 공지사항 접속

②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③ 신청서 작성 → 응모 작품 첨부

④ 저장 (제출기한 내 수정 가능)

⑤ 마이페이지 → 신청서 확인 → 신청 완료 (최종 제출 후 수정 불가)

사전 설명회

• 일시: 2025. 6. 13.(금) 10:00~11:00 (한국시간 기준)

• 주소: 재외동포청 유튜브 (youtube.com/@OKAKOREA)

발표

• 수상자 발표: 2025년 9월 중

/ 재외동포청 (www.oka.go.kr) · 코리안넷 (korean.net) · 소통24 (sooton24.go.kr) 홈페이지

국내 문인과 교류의 장 마련

이 모저 모

(2면의 계속)

〈너의 찬란한 일정〉 전시-박람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할린의 가정들이 자녀를 위해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찾으며, 즐겁고 교육적으로 유익한 가정축제를 조성하는데 있다. 이 행사는 여름의 시작과 세계 아동보호의 날에 맞추어 개최되었으며 박람회의 일환으로 다양한 창작 분야의 많은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박람회에서 부모와 자녀들은 공연-오락산업과 민속 미술 산업에서부터 수공예와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서비스들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문 사진작가와 영상제작자, 컴퓨터 기술 분야의 회사와 축제 조직을 위해 종합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들이 박람회에 참가했다.

방문객들은 박람회에서 제과류와 다른 상품들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창작-교육 활동교실에도 참가하고, 인공지능과 신경망을 이용한 작업을 포함해 인터넷 관련 직업, 현대적인 기술 강연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보이스(소리)' 연출센터의 공연은 큰 호응을 받았고, 창조산업의 대표자들과 개별적 만남은 박람회의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동의 발전과 오락산업의 조성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했다.

Первый семейный фестиваль «Твое яркое событие»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воскресенье, 1 июн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ел семейный праздник —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Твое яркое событие». Ро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услуг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узнать полез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о первое подо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регионе, и на каждой из площадок прошли по два мастер-класса — всего около 20 занятий, где дети смогли освоить новые

навыки и получить заряд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Одна из целей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Твое яркое событие» — помочь сахалинским семьям найти интересные и полезные занятия для детей и организовать веселый и познавательный семейный праздник.

Событие приурочено к двум важным датам — началу лета и Дню защиты детей. В рамках ярмарки собралось множеств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личных твор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На выставке родители и дет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разнообразием услуг: от зрелищ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бизнеса и народ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мыслов до ремесел и исполнитель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Такж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фотографы и видеографы, компании из сферы компьютерных технологий, а также службы, предлагающие комплексные решения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здников.

Посетители 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приобрести сладости и другие товары на ярмарке, но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творчески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ах, лекциях по интернет-профессиям и совреме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включая работу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и нейросетями. Особой изюминкой стал концерт от продюсерского центра «Войс».

Личное общени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помогло участникам выставки найти новые идеи и решения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досуга и развития детей.

아니와 지역 '우룹'강에서 '시마'낚시대회 우승자 결정

아니와 지역 '우룹'강에서 <물고기는 나의 꿈 -체리 연어> '시마' 아마추어 낚시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를 어장 운영자인 '사할린 크릴리온' 기업이 주최했다고 사할린주 수산업부가 전했다.

낚시대회 장소가 교통상 다가가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낚시대회에 사할린 지역의 방문객을 포함해 20명의 낚시애호가들이 참가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시마'낚시 무료 허가증을 받아 어획한 가장 좋은 '체리 연어' 견본을 선보이며, 자신의 실력을 한껏 발휘했다.

낚시대회 결과 무게 1.273kg에 길이 44cm의 시마를 잡은 스크워르쪼와 마리나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무게 1.151kg에 길이 43cm의 시마를 잡은 왈코 예브게니가 차지, 3위는 무게 1.049 kg에 길이 42cm의 시마를 잡은 네우다친 예브게니가 차지했다.

아마추어 '시마'낚시 참가를 위한 자세한 지도는 수산업부 공식사이트와 2GIS 디지털 지도에 게시되어 있다. 실제 궁금한 질문에 신속한 답변을 받으려면 수산업부 사이트의 온라인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по лову симы определили на реке Урюм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На реке Урюм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прошел конкурс по любительскому лову симы «Рыба моей мечты — Вишневый лосось».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о ООО «Сахалин Крильон» — пользователь рыболовного участк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ости с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ью,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около 20 любителей рыбаки, в том числе гости региона.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бесплатные путевки на лов симы и смог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навыки, представив лучшие трофеинные экземпляры «вишневого лосося».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Скворцова Марина, поймавшая симу весом 1,273 килограмма и длиной 44 сантиметра. Второе место досталось Валько Евгению,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 рыбу весом 1,151 килограмма и длиной 43 сантиметра. Замкнул тройку призеров Неудачин Евгений, его сима весила 1,049 килограмма при длине 42 сантиметра.

Подробные карты участков для любительского лова симы опубликованы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 на интерактивной карте 2GIS.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перативных ответов на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мож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нлайн-помощник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усти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РЕКЛАМА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4+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РЕКЛАМА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육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aez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